하마마쓰 산지의 “얼굴”로 세 번수 직물들이 각광

일본의 하마마쓰산지(浜松産地)에서는 세 번수 · 고밀도(細番手 高密度)직물과 세 번수로 아주 얇게 짠(細番手超薄地)직물이 대표 직물로서 일본내는 물론 수출적격우수상품(輸出適格優秀商品)으로 지정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원래 하마마쓰산지는 고밀도 직물을 특산품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데 원사 번수는 100수 쌍사(薩) 120수 쌍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같은 세번수 고밀도 직물일지라도 고참 기능자들의 뛰어난 기획력으로 각기 독특한 기술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수준높은 직물들은 스트레치 기능성을 가미한 것은 당연한 특징으로 되어 있다.

아주 얇은 직물에 대하여는 경위사에 비교적 꼬임이 강한 원사를 사용하여 밀도가 적고 성글게 짠 평직물인 보일(voile)이나 평조직으로 밀도가 적어 성글면서도 빳빳한 맛이 있는 얇은 직물인 오간디(organdy) 타입이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보일류에서는 독특한 기술을 가미한 직물이 수출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100수 쌍사 120수 쌍사의 고급 원사를 사용한 고밀도 직물이나 아주 얇은 직물을 하마마쓰산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특화 상품으로 내놓고 있어 이 산지의 소문이 널리 퍼져 고객을 많이 불러모으고 있다. 이와 같은 직물들은 양산이 어려워, 성수기가 지나도 비축(備蓄)을 위하여 생산을 계속하게 된다고 한다.